

대출금리 인상 '신속'...예금금리는 '미적' 은행들 '잇속 챙기기' 너무한다

기준금리 인상 편승 예대마진 챙겨... 올리더라도 '시닝' 그칠 듯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0.25% 포인트)을 전후로 대출금리를 인상했던 은행들이 예금금리를 올리는 데는 미온적이며 '제 잇속 챙기기'에 급급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대출 금리가 오르면 예금 금리가 제자리이면 은행들의 예대마진이 커져 그만큼 수익이 늘기 때문이다. 특히 은행들은 "이미 예금 금리가 오를 만큼 올랐다"는 입장이라서 앞으로 금리를 올리더라도 '시닝'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

예금금리 인상 '미적' =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그동안 기준금리가 오르면 곧바로 예금 금리 인상을 발표했던 은행들이 이번에는 "시장 상황을 지켜보겠다"는 입장만 되풀이하고 있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지난 한 달 동

안 시장금리 상승을 반영해 1년짜리 예금 금리를 연 3.5%에서 3.85%로 0.35%포인트 이미 올렸다"면서 "시장상황을 본 뒤 금리 조정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우리은행 담당자도 "지난 1일 선제적으로 1년 만기 금리를 4.0%로 0.05%포인트 상향 조정했다"며 "기준금리 인상 이후 채권금리가 많이 오르지 않아 시장 금리 추이를 좀 더 지켜볼 예정"이라고 밝혔다.

은행들이 예금 금리를 올리더라도 기준금리 인상 폭(0.25%포인트)에는 훨씬 못 미칠 것으로 보인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인기 상품에 인상을 많이 올리고, 비인기 상품 위주로 0.25~0.35%포인트 올릴 가능성이 있다"며 "고객들의 피부에는 와 닿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저축은행들도 시중은행의 동향을 본 뒤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은행권 예대금리차 늘 듯 = 은행들은 대출 금리를 이번주부터 일제히 인상했다.

우리은행은 변동형 대출 상품 금리를 지난주보다 0.06%포인트 오른 3.92~5.24%로 조정했다.

하나은행도 지난 주 4.56~6.06%에서 이번 주 4.73~6.23%로 0.17%포인트 인상했다.

광주은행도 자금수요 등을 고려해 최근 대출금리를 최저 0.01%포인트~0.17%포인트까지 인상했다. 6개월 만기 대출의 경우 0.17%포인트 인상해 올들어 최고 인상률을 기록했다.

그러나 은행들의 예금금리 인상 시기와 폭은 미정이다.

은행들이 이처럼 대출 금리 인상에는 적극적이고, 예금 금리 인상은 주저하는 이유는 수익과 직결되기 때문이다. 예대 금리차가 벌어지면 순이자마진(NIM)이 개선되고 수익성도 나아진다. 은행들은 금리 인하기 때는 대출 금리보다 예금 금리를 더 빠른 속도로 내려 예대마진을 챙겨왔다.

실제로 저금리가 지속될 올 상반기에 은행권의 신규취급액 기준 예대금리차는 지난 5월 기준 2.51%포인트로 작년 말보다 0.40%포인트 확대됐다.

LIG경제연구원 정성태 책임연구원은 "은행들은 그동안 금리 인상기에 예금 금리보다 대출 금리를 더 많이 올리는 행태를 반복해왔다"며 "이번에도 정책 변화(기준금리 인상)가 소비자에게는 이득이 되지 않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고 말했다.

/윤영기기자 penfoot@연합뉴스

증권사 주식 고수 미래에셋 수익률 55% 현대·삼성증권 뒤이어

주식 고수가 모였다는 국내 증권사들의 주식 투자 성적표는 어떨까.

12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자기자본 기준 상위 10대 증권사의 2009 회계연도(2009.4~2010.3) 주식 부문 자기매매 수익률은 34.80%로, 같은 기간 코스피지수 상승률 0.33%를 하회했다.

증권사별로 보면 미래에셋증권이 잔액 2573억원에 1427억원의 이익을 벌어들이 수익률 55.46%로 가장 뛰어난 주식투자 실력을 선보였다.

현대증권과 삼성증권도 1년 동안 평균 3228억원, 2946억원을 운용해 1474억원, 1338억원을 벌어들여 수익률 45.66%, 45.42%로 뒤를 이었다.

그러나 신한금융투자·한국투자·대우·대신·동양증권·우리투자·하나·대투증권 등 7개 증권사는 코스피 수익률을 따라가지 못했다.

신한금융투자는 39.68%, 한국투자증권은 39.11%로 소폭 밀렸다. 대우·대신·동양증권·우리투자증권은 20%대, 하나대투증권은 10.77%로 가장 저조했다.

/연합뉴스



“한마리에 3500원짜리 멸치” 12일 서울 이마트 용산역점에서 열린 이마트 물 최고급 특화상품 시식회에 참가한 주부들이 한 마리에 3500원하는 삼천포 죽방멸치를 비롯해 황제도 자연산 미역(100g 당 1만6,000원) 등 상품을 소개하고 있다. /연합뉴스

“물놀이시설·여행상품 할인받으세요”

광주은행 내달말까지 '쿨 썸머 페스티벌' 행사

광주은행은 다음달 말일까지 광주·전남 지역 주요 물놀이 시설 입장권과 여행상품 할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쿨썸머 페스티벌' 행사를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이 행사는 광주비자카드 이용회원을 대상으로 광주·전남 지역 대형 물놀이 시설인 나주 흥중골프장과 '워터락' 이용 시 본인 30% 할인과 동반 3명까지 20% 할인 혜택을, 여수 디오션리조트에서 동반 1명을 포함해 30% 할인 서비스를 제공한다.

화순금호리조트 '아쿠아나'에서도 본인과 동반 3명까지 20% 할인 가격으로 입장할 수 있으며, 함평엑스포공원 물놀이장도 10% 할인 가격에 이용할 수 있다. /윤영기기자 penfoot@

키워드 경제 금융지주회사는 '금융 백화점'

최근 정부가 우리금융지주회사에 대한 민영화를 추진하면서 금융지주회사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광주은행을 계열사로 거느린 우리금융은 국내 대표적인 금융지주회사 가운데 하나다.

금융지주회사(holding company)란 경영권을 장악할 수 있는 만큼의 주식 보유를 통해 은행·증권·보험 등 여러 금융회사를 자회사로 거느리고 경영하는 회사를 말한다. 금융그룹이라고 한다. 우리금융그룹은 현재 우리·광주·경남은행 등 10개 계열사를 두고 있다.

세계적으로도 총자산 기준 상위

25개 은행그룹 가운데 64%에 달하는 16개가 지주회사 형태를 택하고 있다. 국내에는 은행 중심인 산은·신한·우리·하나·KB·SC·씨티금융지주와 증권 중심의 한국투자금융 등이 있다.

금융지주사는 지난 2000년 금융지주회사법을 모태로 탄생했다. 금융지주사의 지배형태는 자회사를 지배하면서 자신도 직접 사업을 벌이는 사업형 지주사, 자회사의 주식을 보유하고 경영을 지배할 뿐 자신의 생산이나 판매에 관련된 일을 하지 않는 순수 지주회

사가 있다.

금융지주회사는 여러 금융 관련 회사를 거느리므로 금융업의 시장 점유율을 높이고 규모의 경제를 통해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은행이 여신과 카드 등을 통해 확보한 다양한 고객층과 데이터베이스를 계열사인 증권사와 자산운용사에 제공·활용해 잠재적인 고객을 확보하는 등 시너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것이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자료제공=(사)광주경제·문화공동체

청소년 '여름방학 경제캠프' 열린다

한은 광주전남본부·시중은행들 프로그램 다양

여름방학을 맞아 시중은행들이 어린이들과 청소년을 위한 다양한 경제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는 오는 8월3일부터 '2010년 여름방학 청소년 경제캠프'를 개최한다.

참가 대상은 광주·전남 지역 중학생 90여명으로 1차는 오는 8월 3일부터 4일까지, 2차는 8월 5일부터 6일까지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 강당에서 각각 무박 2일 일정으로 진행된다.

하나은행은 오는 31일부터 서울 강남구청, 하나고등학교와 공동으로 초등학교 5, 6학년생을 대상으로 '하나시티 어린이 경제교실'을 무료로 연다고 밝혔다. 이틀간 하나고등학교에서 열리는 경제교실은 경제 및 재무관련 강의와 입학사정관제 설명, 하나고등학교 투어 등으로 진행된다. 참가 신청은 오는 20일까지 하나은행의 어린이 경제교육 사이트인 '하나시티(www.hanacity.com)'에서 받으며 최종 60명의 참가자 명단은 23일 발표된다.

신한은행은 한국금융사박물관과 신한갤러리에서 총 8회에 걸쳐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박물관 교육은 오는 22일까지 이메일(museum@shinhan.com)로, 신한갤러리 교육은 19일부터 8월 1일까지 이메일(shgallery@shinhan.com)로 신청을 받는다.

외환은행은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인턴십 체험단을 모집 중이다. 참가 희망자는 오는 21일까지 영업점에 신청하면 되며 총 230명을 선발해 8월 9일부터 16일까지 기수별(8기~13기)로 체험 행사를 진행한다. /윤영기기자 penfoot@

보험사 보너스 잔치...과장급 1000만원은 기본

사상 최대 실적에 고액 성과급 잇따라

지난해 사상 최고의 실적을 거둔 보험회사 직원들이 고액의 성과급을 받고 회색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1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2009회계연도(2009년 4월~2010년 3월)에 1844억원의 사상 최고 순이익을 기록한 현대해상은 최근 직원들에게 기본급 500%의 성과급을 지급했다.

이는 순이익의 일정 부분을 직원들에게 돌려준다는 노사 합의에 따른 것으로, 과장급은 1000만원 가량의 현금을 손에 쥐었다.

LIG손해보험도 과장급이 1000만원 가량의 성과급을 받았다. 삼성화재는 올해 초 연봉의 38%를 성과급으로 받은 데 이어 최근 기본급 100%를 추가로 받았다. 과장급은 연초 1600만~1700만, 7월 200만원 가량을 받아 내년 새 2000만원 가까운 돈을 챙겼다.

2009년도에 사상 최고인 9천억원의 순이익을 달성한 삼성생명의 과장도 연초에 1500만원, 최근 2000만원 가량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더구나 올해는 순이익이 1조원을 훨씬 넘는 전망이어서 내년 초 과장급의 성과급이 2000만원을 훨씬 넘을 것이라는 후문이다. /연합뉴스

복덕의 인연! 운명을 바꾸는 인생이란? 속

삼중콘스님 복받는 특별강연회

“꼭 이루고자 하는 소망을 위하여 어떤 기도로 어떻게 소원성취 하는가?”

많은 분들이 강연회에 오시는 편류가 있습니다. 저희를 놀라게 하는 것은 본복입니다.

1. 신안도 1000명에게 영접할 주신님에 대한 이해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2. 신안도 1000명에게 영접할 주신님에 대한 이해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개회식에 오시면 사승 초빙인사입니다. (신안도 1000명에게 영접할 주신님에 대한 이해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7월 14일 (수요일) [수요일] [수요일]

08:30~11:30 09:30~12:30 02:30~7시

광주 한국교직원공제회 광주시부 3층 연회실 (신안도 1000명에게 영접할 주신님에 대한 이해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다들 물어봐도 모르겠어... 영접할 주신님에 대한 이해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영접할 주신님	영접할 주신님	영접할 주신님	영접할 주신님	영접할 주신님
영접할 주신님	영접할 주신님	영접할 주신님	영접할 주신님	영접할 주신님
영접할 주신님	영접할 주신님	영접할 주신님	영접할 주신님	영접할 주신님